

우리금융지주, 회장·은행장 겸직... 손태승號 출범 눈앞

오늘 이사회서 회장 겸직 결정
다음달 28일 주총서 공식 선임
지배구조·M&A 등 항방 촉각

새로 설립될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손태승 현 은행장이 내정됐다. 지주 설립 초기에는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주 설립 인가 바로 다음날 지배구조와 회장자리에 대한 인사를 결정하면서 인수합병(M&A) 등 공격적인 확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3월까지 지주회장·행장 겸직

우리은행은 8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2020년 3월)가 끝날 때까지 손 현 행장이 우리금융 회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그동안 사외이사들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참석한 사외이사 간담회를 수차례 열고,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문제를 비롯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논의를 거듭했다.

지주 설립 초기에는 현 우리은행장이 지주 회장을 겸직해야 한다는 것이 이사회 판판이다.

지주가 출범하더라도 우리은행의 비중이 99%로 절대적이다. 당분간은 우리은행 중심의 그룹 경영이 불가피하고, 카드



서울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종금의 지주 자회사 이전과 그룹 내부등 급법 승인 등 현안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주와 은행 간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겸

직제제가 유리하다.

이와 함께 지주 이사회는 2016년 민영화시 과점주주 매각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현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손 행장은 다음달 28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롭게 설립되는 우리금융의 회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M&A 큰 장 열리나

지주 설립은 카드와 종금은 은행 밑에 계속 두고, 우리은행을 포함한 기타 6개 법인을 지주 자회사로 두는 구조로 추진한다.

이제 금융권의 관심은 우리금융이 얼마나 공격적인 M&A에 나설 지다. 지주 체제로의 전환이 출자 제한을 극복하고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한 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미 지주사 전환 이후 자회사 편입을 위해 증권, 보험,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다양한 분야에 상표권을 취득해 놓은

상태다.

지주사의 출자여력은 8조7000억원이다. 우리은행의 현재 출자 여력 7000억원 안팎에서 10배 이상 증자한다. 은행은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0%라는 출자 한도가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는 이중 레버리지 비율(double leverage)이라는 간접 규제만 지키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빅 딜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지주사로 전환하면 내부등급법이 아닌 표준등급법을 사용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초반으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 자기자본 산정 규모가 낮아져 대형 M&A에 나서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지주 전환 초기에는 스몰 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거론되는 업권은 자산운용과 부동산신탁 등이다. 상대적으로 인수 부담이 높지 않으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은 높은 분야다.

/안상미 기자 smah1@metroseoul.co.kr

KEB하나은행 英서 대한민국 최우수 PB상 수상

해외 주요 4대 PB어워드 석권

KEB하나은행은 지난 7일 오후(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더 뱅커(The Banker)지와 PWM(Professional Wealth Management)지 공동 주최 '제10회 글로벌 PB 어워드(Global Private Banking Awards 2018)'에서 국가별 최고상인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Best Private Bank in Korea)'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한 이래 올해로 통산 6번째 수상을 이어나가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 은행임을 국내외에 재확인시켰다.

더 뱅커(The Banker)는 KEB하나은행을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으로 선정하며, ▲손님의 니즈(Needs)에 맞춘 풍부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디지털금융 시장을 위한 온라인 채널 혁신 및 대면 채널 강화를 위한 오프라인 채널 혁신을 통한 차별화 전략 ▲금융그룹 자산관리 브랜드 통합과 협업(Collaboration) 강화를 통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확대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KEB하나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외 주요 4대 PB어워드를 모두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2월



함형길 KEB하나은행 압구정PB센터 지점장(오른쪽)이 지난 7일 저녁(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셰라톤 그랜드 파크레인 호텔에서 글로벌 금융 전문지 더 뱅커지와 PWM지 공동 주최로 열린 '제10회 글로벌 PB 어워드'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Best Private Bank in Korea)'을 수상하고, 시상자인 유리 벤더(Yuri Bender) PWM지 수석편집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로머니(Euromoney)지로부터 통산 11번째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한 데 이어, 글로벌파이낸스(Global Finance)지로부터 '글로벌 최우수 디지털 클라이언트 솔루션 PB은행상'을 수상했고, 10월에는 PBI(Private Banker International)지로부터 '글로벌 혁신 비즈니스 모델 우수 PB은행상'을 7년 연속 수상하는 등 해외 주요 PB어워드 4개를 모두 석권했다.

/김문호 기자 kmh@

P2P대출, 금융권 플랫폼 투자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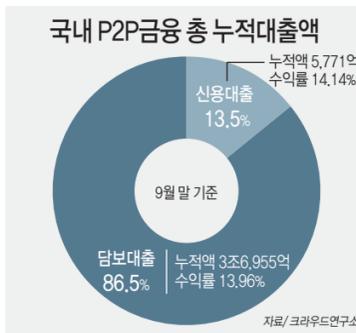
테라펀딩·피플펀드, 삼성페이 입점
P2P옥석 가리기·투자자 보호 가능

P2P(개인간 거래) 금융시장이 누적대출액 4조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P2P업체들이 속속 모바일 플랫폼 입점을 통해 투자자 모집에 나서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P2P투자를 일부 허용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힌데다 내년부터는 P2P투자자 거둔 이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낮아질 예정이어서 P2P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업체 피플펀드, 테라펀딩이 삼성페이에 입점했다. 삼성페이의 금융상품추천 'P2P채권투자'를 통해 피플펀드와 테라펀딩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

테라펀딩 관계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협의를 거쳐 삼성페이에 입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P2P업체들은 간편송금 앱 '토스'를 시작으로 하나금융지주와 SKT가 합작 설립한 핀크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왔다. 현재 토스에는 P2P업체 8퍼센트, 어니스트펀드, 테라펀딩, 투게더펀딩이 입점해 있으며, 별다른 절차 없이 토스 앱을 이용해 투자가 가능하다.

이처럼 P2P업체들이 모바일 플랫폼 입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P2P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신용대출 2000만원, 부동산 투자는 1000만원에 한해 투자가 가능하다.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자가 많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토스와 업무 제휴

로 소액투자자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상승세를 탄 P2P시장은 '금융기관의 P2P 투자'가 허용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월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P2P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같은 발표가 난지 일주일만에 금융사들은 P2P 개인신용대출 전문업체인 8퍼센트, 렌딧, 펄펀딩에 투자의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1월부터 P2P 투자자 거둔 이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은 확 낮아질 예정이어서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한시적으로 P2P 금융투자에 매기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P2P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플랫폼뿐만 아니라 금융사 투자가 허용될 경우 업체들은 업계 옥석가리기와 투자자 보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법제화도 금융회사의 투자 허용시기에 맞춰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스마트폰으로 보험 가입 '모바일 방카슈랑스'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8일 스마트폰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한 '모바일 방카슈랑스'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모바일 방카슈랑스'는 기존 KEB하나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앱인 '1Q Bank' 내에서 은행 방문 없이 저축보험은 물론 보장성보험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을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또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한 보험 가입·입금·조회는 물론 금융권 최초로 가입 보험에 대한 자산관리 분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의 보험자산관리 분석 서비스는 '모바일 방카슈랑스' 내 '내보험INFO' 서비스를 통해 손님이 가입한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조회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함으로써 효율적인 보험자산관리를 돕는 기능이다.

/김문호 기자

마산종합금융센터 WM복합점포 오픈

KB금융그룹 61번째 점포
특화된 맞춤 서비스 제공

KB금융그룹은 지난 5일 KB국민은행 마산종합금융센터가 입점한 사옥으로 KB증권 마산지점 이전을 통해 은행·증권 자산관리(WM) 복합점포를 신규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은행·증권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WM 복합점포를 총 61개로 확대했다. 이번 복합점포 오픈으로 KB금융은 CIB복합점포 9개와 더불어 총 70개의 복합점포망을 보유하게 된다.

KB금융의 복합점포 확대는 윤종규 회장이 강조하는 '원firm(One Firm), 원(One) KB'와 각 계열사간 시너지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수

요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금융의 WM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박정림 부사장은 "은행의 종합금융센터는 개인고객 뿐만 아니라 기업금융고객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은행·증권의 협업을 통해 개인 및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시너지 영업이 가능한 곳"이라며 "현재까지 PB센터의 복합점포화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는 종합금융센터를 중심으로 복합점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박철용 KB국민은행 마산지역본부장(왼쪽부터)과 최상국 KB국민은행 경남지역영업그룹 대표, 김홍윤 KB증권 마산지점장, 이순조 KB증권 남부지역본부장이 지난 5일 KB국민은행-KB증권 복합점포 개점행사에서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KB금융그룹